

1. \_\_\_\_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예수님(1장) 그런데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도 견고하여 그것을 순종치 않으면 \_\_\_\_을 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통해 선포하신 구원을 \_\_\_\_ 여기면 그 벌을 어떻게 피하겠는가?(2-3)

2. 이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, 그 다음은 예수님께 \_\_\_\_자들이 전해 주었고, 하나님께서 \_\_\_\_과 \_\_\_\_고, 여러 가지 \_\_\_\_과 자신의 뜻을 따라 \_\_\_\_의 나눠주신 것(은사)으로 전해 주셨다.(3-4)

3.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주관에 두신 적이 없다. 천사보다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, \_\_\_\_과 \_\_\_\_로 관을 씌우시고 \_\_\_\_을 그 발아래 복종케 하신 예수님께 이 구원을 주관토록 맡기셨다.(5-8)

4. 비록 우리가 아직은 만물이 예수님의 발아래 굴복한 것을 보지 못하고, 오히려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오히려 천사보다도 못하게 보이셨지만, 하나님께서 그분을 \_\_\_\_와 \_\_\_\_으로 관을 씌우셨다. 그 죽음은 \_\_\_\_을 위해 맛보신(받으신) 것이었다.(8-9)

5. (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, 그를 위하여 만들어진) 하나님께서는, 많은 아들(우리)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 구원의 주를 \_\_\_\_으로 말미암아 \_\_\_\_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.(10)

6. 거룩하게 하시는 자(예수님)와 거룩함을 입은 자(우리)가 다같이 \_\_\_\_ (하나님)에서 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\_\_\_\_라 부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게 하셨다.(11)

7. 한 부모의 피와 살(혈육)을 함께 나눈 자를 형제(자녀)라 부른다.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\_\_\_\_을 입으셨다.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\_\_\_\_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1) \_\_\_\_시키시고, 2) 일평생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을 \_\_\_\_주려 하셨다.(14-16)

8. 예수님은 \_\_\_\_에 \_\_\_\_들과 같이 되셔서 백성(형제)의 죄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수 있으시다. 왜냐하면 자신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.(17-18)

### [무서워 말라]

무서워 말라 사랑하는 마리아 주님의 은혜가  
네게 임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그 이름이라

무서워 말라 다윗의 자손 요셉 너의 아내 마리아  
어서 데려오라 저가 잉태했으나 성령으로 된 것이라

그의 강한 팔이 높은 마음 낮추고  
낮고 천한 자를 그가 높이리라

주리던 자를 좋은 것 먹이시며  
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

무서워 말라 양떼에 자는 목자  
만백성 기뻐할 소식 전하리라 구주 나셨으니  
곧 그리스도 주시라

무서워말라 벌을 본 동방박사  
오늘 베들레헴에 왕이 나시리라  
예물을 드려서 큰 왕께 경배를 하라

\*그의 강한 팔이 높은 마음 낮추고  
낮고 천한 자를 그가 높이리라

주리던 자를 좋은 것 먹이시며  
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x2  
주님 아들이라 x2

### 임마누엘이라 하리라(마 1:18-25)

1. 하나님께서 예수(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)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가 \_\_\_\_을 저희 \_\_\_\_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이다.(21)

2.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처럼 들리는 ‘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을 \_\_\_\_이라고 하리라’는 말씀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셉의 아들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하지 않고 \_\_\_\_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할 것이라는 예언이다.

3.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 구원하신다. 예수님을 \_\_\_\_이라고 고백하는 자만 그의 백성이다. 도마의 신앙고백-나의 \_\_\_\_시오, 나의 \_\_\_\_이니이다.(요20:28)